

「창조도시 자문위원회」 현장자문회의 세부내역

I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16. 03. 28 (월) 14:30~17:00
- 장 소 : 3층 기획상황실, 3개 명소사업 현장
- 참석인원 : 구청장, 위원 9명, 구 간부 15명
 - 참석위원 : 유인촌위원, 안호상위원, 정재형위원, 안병광위원, 박동훈위원, 이영혜위원, 한옥현위원, 김개천위원, 김윤수위원
- 주요내용 : 위촉식 및 명소사업설명, 현장투어

II 현장자문 세부내역

서애대학문화거리

계산산업 건축현장

□ 유인촌 위원

- ▶ 주민과 관광객 등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일 중요함
- ▶ 분양후 입주업체들이 구청과 협의를 통해 좋은 가게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음

□ 정재형 위원

- ▶ 지하1층 위치가 좋은 공간이 될 듯한데 그곳에 소극장이나 문화적인 콘텐츠가 많이 들어오길 바람
- ▶ 버스킹가수들, 오픈갤러리 등 개방형의 건물이 들어와야 사람을 끌어들 수 있음
- ▶ 예술가들의 레지던트 등도 생각해주면 좋을 듯 함

□ 박동훈 위원

- ▶ 접근공간이 뛰어난 1층 핵심공간은 쉽게 걸터앉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광장 공간으로 되어야 함.

유성롱고택터 추정지

□ 안호상 위원

- ▶ 서애광장으로 학생들이 다수다니는 고택터가 적정
- ▶ 넓지 않아야 문화가 만들어지고 좋은 광장이 됨. 또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곳이므로 광장으로서 좋은터라고 생각함

□ 그 외(자문위원)

- ▶ 규모가 클 필요는 없으며 도로와 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좋은 공간이 될 것임
- ▶ 필동삼거리 주변의 경우 당장 조성하기는 편리할 것으로 보이나, 자칫 1회성 행사장소가 될 가능성 높음
- ▶ 광장조성으로 문화가 만들어지면 주변 상가변화도 예상됨

성곽문화예술거리

자유총연맹부지

□ 유인촌 위원

- ▶ 민간을 통한 개발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공방촌을 조성하여도 좋을 듯 함
- ▶ 구에서 조성하여 예술가나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작업하고 보여주는 마을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을 듯 함

□ 박동훈 위원

- ▶ 이 자체를 바꾸지 않고 이대로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 함
- ▶ 최근에는 무조건 옛날 집들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현대집들도 의미가 많고 연남동 등을 보면 장인들이 하는 공방같은 곳은 구경하는 공간으로도 유명함
- ▶ 북촌한옥마을조성할 때 어느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공방으로 들어오도록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골랐다고 함. 이곳을 만약 공방 등으로 조성시에도 참고 수준있는 예술가를 유치하면 신진작가들이 몰려옴

□ 정재형 위원

- ▶ 공방같은 것을 할때는 유리창을 크게해서 관광객이 작업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
- ▶ 모던아트 쪽으로 마을조성이 들어가도 좋을 듯 함

성곽주차장 조성지

■ 유인촌 위원

- ▶ 문화시설에 공연장, 전시장은 기본으로 있어야 사람이 모임
- ▶ 주민들이 모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오픈된 주민커뮤니티공간도 필요함
별도 공간보다는 예술가들이 공방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
- ▶ 추진중인 명소사업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총괄하는 문화기획자가 필요

■ 안호상 위원

- ▶ 공연장 등을 만들 경우 스튜디오처럼 박스로 만들어 작업장으로도 활용할수 있는
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음
- ▶ 남산국악당, 풍류극장 같은 곳을 가보면 200석 정도 약 100평의 공간으로 민속국악
공연장을 잘 만들 수 있음. 주민과 가까이 공연을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좋음.

■ 박동훈 위원

- ▶ 공방의 구성은 전통공예와 모던아트를 적정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
- ▶ 모던아트만으로는 유명세가 적어 집객효과 떨어짐

■ 정재형 위원

- ▶ 공방은 전통공예에 도예가 깊은 분 몇 분을 유치하면 소장파 작가들이 몰려옴
공방의 조성은 밖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투명재질로 시공

성곽길초입(신라한옥호텔부지)

■ 유인촌 위원

- ▶ 전통을 살려서 해야할듯함. 성곽에 국한하지 말고 옛것에 대한 느낌을 조화롭게
이어져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,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함

■ 박동훈 위원

- ▶ 다산동 성곽길 초입을 서울한양도성을 생각하여 센터역할이 되도록 성곽길 투어 등도
검토 필요 (정재형 의원도 적극 찬성)

■ 김윤수 위원

- ▶ 성곽길과 신라호텔 한옥호텔과의 연결을 너무 부각시켜 한옥을 강조하면 이질감이
커 질 수 있으므로 기존시설을 잘 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(개발보다는 현재그대로)

광희문 문화마을 조성지

▣ 유인촌 위원

- 문화시설에 충무아트홀 예술가(뮤지컬 등)들의 연습장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생각임
다른 지역들도 연극 뮤지컬하는 예술가들의 연습장이 부족해 많이 대기중이라서
이곳을 연습장으로 할 경우 아주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임.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
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지역이 될 수 있음.
- 규모를 크게하고 층고도 높게 하면 대관에도 효과적

▣ 박동훈 위원

- 바로 앞 지역이 화려한 동대문 상권, DDP가 있어 광희문 주변에 내부구조만을
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좋을 듯 함.
(실제 프랑스를 여행하면 그런 지역이 많음)
- 호텔업계를 섭외하여 일괄적으로 조성단지화하는 방안도 제안함